

대학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실용음악과 개선방안

오성택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Applied Music Department Improvements due to Decrease in College Admission Resources

Sung-Taek Oh
Department of Music, Sejong University

요약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 정원보다 입학 예정자가 줄어들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들은 폐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로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용음악과의 수가 늘어났으며, 최근 한국 아이돌 그룹의 빌보드 차트 상위권 진입 등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인기는 매년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실용음악과 보컬전공 입시 경쟁률은 347:1이라는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몇몇 인기 학교만 집중되는 지원자 증가로 수도권 밖 대학들은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변화와 입시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 위주로 치우친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설문문을 통하여 입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운영 방법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이 대응할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Population problems caused by declining fertility rates and aging are social issues that have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Korea's birth rate (0.78) in 2022 was the low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number of expected admissions has already decreased compared to the university quota, and universiti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facing a crisis of closing. With the popularity of various audition programs that started in the mid-2000s, the perception of popular music has changed, and the number of applied music departments has increased nationwide. The worldwide popularity of Korean popular music, such as the recent entry of Korean Idol groups to the top of the Billboard charts, is increasing yearly. Despite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applied music and vocal majors is an abnormal phenomenon of 347:1, and local universities, which are concentrated in popular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recruiting quota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dmission resources and the entrance exam results due to the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The results revealed problems in the entrance exam system that was biased towards performance and the problems in the curriculum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In addition, through surveys, problem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education system are identified. The fast-changing music market is identified, and a method for practical music education is proposed through a differentiated operating method and a systematic system.

Keywords : School-age, Population, College, Applied Music, Curriculum,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g-Taek Oh(Sejong Univ.)

email: ohdrum137@gmail.com

Received April 17, 2023

Revised May 11,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다[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 수업의 질이 떨어지며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2]. 2000년대 중반 시작된 TV 경연 프로그램의 인기로 대중음악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여러 대학에서 애타투어 실용음악과를 학교에 개설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뮤지션 (PSY, BTS, Black Pink) 음악이 순위에 오르면서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은 대중음악 이외에 영화, 드라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흥행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 대학에 실용 예술계열 학과들을 신설시켰으며 그중 실용음악과의 입시 경쟁률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몇몇 대학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대학을 제외한 학교들은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실용음악의 인기로 엄청난 수의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개설하면서 선택한 무작정 따라 하기식 교육과정의 부작용이 인구 절벽 현상과 함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 공급'이라는 심각한 운영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3]. 실용음악과 수업의 내용은 실용음악과가 처음 개설 이후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과목명은 달라도 대부분 같은 내용의 교과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용음악 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한 서울예대의 교과 과정을 다른 학교들이 참고하였기 때문이다[4]. 음악 산업의 발전과 무관하게 연주자 양성 위주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실용음악'의 사용과 정의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배장은(2017)은 'Applied Music Department'는 한국 고유의 신생 학과이며 인터넷 검색엔진에 그 역사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주장 하지만[5], 실용음악이 고유의 학문임을 증명하기엔 현 교육과정은 미국의 음악 대학 교육을 따르고 있으며 이정선(2010)은 실용음악을 학과명으로 택한 것은 발음이 쉬운 까닭과 함께 응용이라는 단어보다 실용이란 단어가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다며 학과명을 '실용음악'으로 정한 데에는 큰 의미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6]. 양우석(2017)은 한국 대학 실용음악 교육은 30년 동안 음악 산업과는 무관한 교육에 일관해 왔다고 말한다[7]. 이는 K-Pop의 인기에 비해 실용음악과가 현재 한류 및 대중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가 설치된 대학의 모집, 교육 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실용음악과의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실용음악을 통해 K-Pop과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문제와 음악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 교육산업의 유연한 대응을 도출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에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학령인구의 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예정자 및 응시 인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극심한 경제 위축과 수도권 외 사립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문 닫는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문제로 대학 입학 가능 인구보다 입학 예정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8월 공시된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모집 32만 251명, 지원자 합계 252만 6,248명으로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8 대 1에서 0.9배수 하락한 수치다. 4년제 대학 212개교 기준 대학별 전체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인 학교는 제주 국제대 등 10개 대학이고 경쟁률이 2 대 1 미만인 대학은 경주대 등 21개교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은 한라대 등 21개교이고, 이들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2.3 대 1이다[8].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하여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지원(재정)을 끊어 제대로 된 대학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그리고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대학 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충원율이 낮은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고등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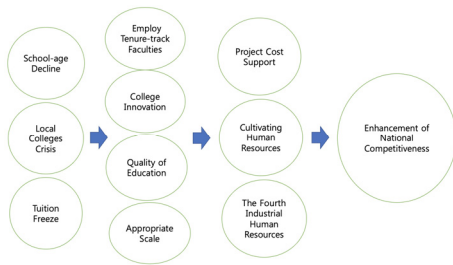


Fig. 1.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2.2 실용음악 대학 현황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명문 실용음악 대학의 지원자 수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의 특징은 높은 경쟁률과 유명 음악인을 많이 배출한 이른바 ‘실용음악 명문 대학’이다. 주로 수능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실기 위주의 입시 요강을 선호하는 탓에 2~3년제 전문대학의 지원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일반대학은 수능 성적 반영 없이 수시모집에 ‘실기 우수자’ 정원을 대폭 늘려 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악 전공을 제외한 보컬, 작곡 전공만 정시에 추가 모집하는 등 지원자가 많은 전문대학과의 경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기 위주 입시제도는 비정상적인 경쟁률을 만들어 내며 한 시간에 25~30명을 ‘자유곡 1곡’만으로 평가하는 실기 고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당 평가 시간 1분, 길게는 2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Table 1. Number of Recruitment for Early Action

Name of School	Recruit	2021	2022	+/-
Seoul Institute of Art	30	3241	3495	+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	47	3037	3123	+
Howon Univ.	95	3371	3283	-
Dankook Univ.	40	592	536	-

2.3 실기 위주 입시제도의 문제점

경쟁률의 증가로 실용음악은 기능만 강조한 입시를 위한 공부로 변질하였다[9].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입시교육의 부실은 대학 실용음악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도미노 현상을 보여준다[10].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학의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자유곡 1~2곡 연주가 기본이다. 기본 자유곡 연주 외에 학교마다

다 첨가되는 시험들이 있는데 특히, 입시 요강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실기곡 외에 즉흥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의 음악성 및 음악적 역량을 1곡 안에 모두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몇몇 대학들은 부족한 고사 시간 안에 분별력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실기 고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2차 고사에 선발된 학생들은 입시 요강에 기재된 자유곡 외에 다양한 스타일, 즉흥연주, 초견 등 질문을 통해 선발되지만, 이 역시 학교마다 매년 질문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뿐 아니라 심사위원의 주 연구 분야 및 학교 교육과정 차이로 학생들의 입시 준비의 폭은 넓어지고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질문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기는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개별 심사 시간을 늘려 충분한 실기 고사와 면접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하고 심도 있게 선발하기 위해 2차 실기시험을 1시간에 4명까지 (1인당 25분) 확대하여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고사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역량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1차 실기 고사는 모든 지원자를 평가해야 하므로 결국 한 사람당 3분 미만의 실기 고사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용음악 대학들은 실기 위주의 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률 높은 대학의 합격 여부가 '잘한다' 또는 '못한다'의 기준이 되며 이는 음악적 역량의 기준과 상관없이 실기 결과에 따른 합격과 불합격의 이분법적인 기준이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학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대학 이탈을 증가시킨다.

Table 2. Audition Requirement

Name of School	1 st Audition	2 nd Audition
Seoul Institute of Art	Any Song 1	Any Song 1 (2 for Singer), Music Theory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	Any Song 1	Performance/Any Song 3 for Singer
Howon Univ.	Any Song 1 or 2	None
Dankook Univ.	Any Song 1	Performance/Theory

2.4 개선방안

2.4.1 선발고사

1차 실기 고사의 분별력을 높이고 2차 실기 고사에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해외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발고사(Pre-Screening)는 정

해진 기한 안에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연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선발고사 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장르와 템포, 키 등이 포함된 15~20분 분량의 연주곡과 기본기(스케일, 클래식 연주곡, 루디먼트 등)가 포함된다면 시험장에서의 짧은 고사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절하된다는 불만도 없게 되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1차 선발고사를 거쳐 합격 인원의 3배수 정도의 학생을 2차에서 심사한다면 2차 고사 개인 평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2.4.2 입학 사정관 제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해서 느끼는 동기나 선배들의 수업 태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학과 특성상 앙상블, 공연, 합주 등 팀을 이루거나 단체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에 실력보다 책임감과 의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실용음악 관련 대학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음악 대학의 입시는 실기 고사,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학 사정관(Admission Officer)과의 면접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가 아닌 실용음악 전반의 지식이 있는 입학 사정관의 면접을 통해 진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음악적 목표가 무엇인지, 학교 진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교육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같이 학생, 환자를 직접 대하는 학교는 면접고사가 따로 이루어진다. 실용음악 대학도 인터뷰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면 준비를 통해 수험생이 무엇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학교에서 본인이 얻어야 할 부분들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2.4.3 전형의 차별화

교육부는 대학 수능 고사 성적에 따른 정시전형의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해결 방안으로 생활기록부, 특별 전형 등의 대입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시전형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 특히 실용음악과의 경우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실기 고사로 선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생 대부분은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수시전형을 정시 고사의 '모의고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대학 원서 지원을 통해 원서접수 경쟁률

을 높이고 정작 실기 고사 일정이 겹쳐 비인기 대학 결시생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몇몇 대학은 실기 날짜와 시간을 변경해 주면서까지 응시생 모시기에 힘쓰고 있으며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일반대학 정시 모집은 가, 나, 다 군으로 지원 가능 대학이 제한됐지만, 실용음악의 경우 인기 있는 대학이 전문대, 산업대, 전공대로 원서 지원 가능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 조장과 줄 세우기식 학생 모집 경쟁을 일으켰으며 전공대학은 수시합격 후 정시 지원 가능이라는 편법을 감행하면서 스스로 대학의 문턱을 낮추면서까지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이상 현상을 보인다. 이는 인기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전형 합격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학에서 뽑아 놓은 예비 순위 학생까지 등록하지 않는다면 합격 점수와 관계없이 하위 순위 학생들이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용음악 실기 고사는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합격자 수의 3배 정도 예비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전공별 정원 없이 '기악 전공'으로 묶여 예비 번호가 발생하게 되어 특정 악기의 학생수가 부족한 상황이 매해 발생한다.

2.5 실용음악 교육의 문제점

실용음악은 지난 30년간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 면에서는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음악 산업은 악기 연주자 외에 다양한 인력을 요구하는 실정이지만 국내 실용음악과 입시, 교육은 아직 연주자와 작곡가 양성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팝 음악과 재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음악을 한꺼번에 '실용음악'이라는 범주로 다루기엔 이제 음악 산업의 규모가 광범위하다. 음악 산업은 연주자 외에도 기획자, 제작자, 교육자 등 연주 외 분야에 실용음악과 출신 인력을 더 필요로 하지만 교육과정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실용음악과의 가창, 연주, 작곡 시스템 외에 다양한 실용음악 관련 전공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비수도권 대학들은 뮤직 프로덕션, 뮤직 테크놀로지, 사운드 엔지니어링 등 전공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일 뿐 지난 30년 동안 실용음악 전공의 커리큘럼의 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졸업 후 관련 직업군과 진로 탐색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실용음악과를 구성하고 있는 가창, 연주, 작곡 전공 외에 다양한 실용음악 관련 전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음악 교과의 기본이 되는 음악이론, 실기 외에 저작권, 음반 제작, 음향, 컴퓨터 음

악, 음악교육, 음악치료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수업이 필요하다. 실기 위주의 진로는 연주자 또는 개인 지도를 통한 수업이 대부분인데 학원, 교습소 등 등록된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지도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많은 학생은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규제할 방법도 부족하다.

2.6 개선방안

2.6.1 교육의 질 개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전임 교원 확보,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대학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내놓았다. 최근 실용음악 학원과 고등학교 위탁 과정, 예고, 실용음악 고등학교 등 학생들은 대학 진학 전부터 많은 교육과 정보를 얻는다. 대학에 진학 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낮다면 비싼 학비를 들여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적어진다. 교수의 취향에 맞추어져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아닌, 학습자가 얻어 가기를 원하는 내용의 맞춤형 수업의 설계가 필요하다.

2.6.2 수준별 분반

실용음악과 1학년 과정은 기초 화성학, 시창청음 등 학기마다 전공 필수로 구분된 이론 수업을 듣게 되는데 신입생들의 평균 수학 능력의 수준 미달이 크게 나타나며 세부 전공 학생들 간 동일 과목 이수 능력의 편차가 심하므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8]. 해외 실용음악 대학의 경우 입학 후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화성학, 시창 청음, 앙상블, 편곡법, 뮤직 테크놀로지 등 학과 기초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하고 전공과 악기에 상관없이 입학시험을 바탕으로 한 수준별 분반을 통해 학생들의 클래스를 구분 짓는다.

2.6.3 교원 확보

실용음악과는 다양한 분야별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학과 운영을 위해 3~4명의 전임 교원과 수십 명의 강사로 학과를 운영해 오고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실용음악과는 학생 15명당 담당 교수 1명이라는 OECD 표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숫자이며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전임 교원 확보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사 보호법이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를 귀속시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줄 알았으나 일정 시수만 강의

해야 하는 상황은 강사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교원의 질과 특성으로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껍데기만 다르고 비슷한 강사진을 꾸리고 있는 대학의 모습으로 퇴색되어 버렸다. 학교마다 차별화된 교육 방법과 그에 맞는 교. 강사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임 교원의 수를 늘려 학생들에게 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Table 3. Current Status of Professor and Students

Name of School	Full-Time	Part-Time	Students
Seoul Institute of Art	6	62	297
Howon Univ.	14	99	975
Dankook Univ.	5	40	211

3. 조사 및 분석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용음악과 실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위해 국내 소재 5개 실용음악과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06명에게서 답변을 얻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설문은 2022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교의 전임교수 및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 및 면담 조사를 하였다.

Table 4. Survey participants information

School	Respondents	Percentage
Baekseok Art Univ.	40	38.9%
Myungji College	32	31.1%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16	15.5%
Dankook Univ.	8	7.8%
Seoul Institute of Art	7	4.8%
Total	106	

'실용음악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 너무 짧은 실기 고사 시간(55명, 52.9%), 2위 교별 선발 기준의 차이(38명, 36.5%), 3위 실기(연주) 위주의 평가 방법(28명, 26.9%), 매년 같은 실기시험 방

식,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부재 등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Table 5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뮤지션이 되기 위하여 음악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53.8%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실용음악과 진학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주, 전공 실기 관련된 과목은 90%의 학생들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교수법, 음악교육, 음악 산업 관련 수업은 50%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커리큘럼 안에서 확장됐으며 모든 대학은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무시한 '따라 하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 가시화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폐교, 폐과 위기를 방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Table 5. Survey Contents

Number	
1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study Applied Music for being a musician?
2	Are there enough subjects to the performance?
3	Are there enough subjects to the music Education?
4	Are there enough subjects to the music industry?(Job Opportunity)
5	What is the best grade reflection rate for the entrance exams?

Table 6. Survey Analysis

Survey #1	
1. Yes	46.2%
2. No	53.8%

Survey #2		
Subjects	Yes	No
1.Recital	90	16
2.Private Lesson	97	9
3.Ensembles	88	17
4.Music Tech	77	28

Survey #3		
Subjects	Yes	No
1.Music Introduction	76	30
2.Pedagogy	50	55
3.Music Theory	101	4
4.Elective (History, Arranging etc.)	77	28

Survey #4		
Subjects	Yes	No
1.Music Producer	58	48
2.Live Event Production	60	46
3.Music Business	69	36
4.Management	58	48

Survey #5		
Subjects		
1.Performance	60%	53
2.Interview	20%	52
3.Music Theory	20%	52
4.Academic Transcript	0%	44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의 발달 덕분에 해가 지날수록 입시생들의 음악적 기본 소양은 성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다루어야 할 과목의 다양성 확보 및 수준의 조절이 필요하다. 교과 과정에 맞추어진 학년별 학기별 수업 시간표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교과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수준을 획일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둘째, 전공별 분반 및 수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대 음악 산업에 발맞추어 연주, 합주 위주의 교육과정이 아닌 컴퓨터 음악, 레코딩, 1인 음반 제작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뮤직 비즈니스 교육의 강화로 뮤지션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해 대학에서 배워야 필요가 있다.

셋째, Juries(학기 또는 학년마다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 진학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입학고사, 학년별 '진급시험'도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와 맞춤식 수업 진행을 위해서 중간, 기말고사 외에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과 실습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학교의 수준으로 반영된다. 실제 입학 후 연주실력 외에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실기 고사 이외에 인터뷰, 음악이론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대적인 국가 지원과 정책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인구학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음악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대학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서에 오랜 시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학 서열화 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지만, 따라 하기식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를 통해 학교마다 경쟁력을 키워 학생 모집에 힘을 필요가 있다.

둘째, 입시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짧은 고사 시간으로 변질한 기능 위주의 평가가 아닌 '프리 스크린(Pre-Screen)'을 활용한 입시제도, 입학 사정관 제도 등을 통한 면접고사 점수 확대 등 실기 고사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다. 수준별 분반, 기자재와 시설 보안을 통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 유치 및 유지에 힘써야 한다.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실용음악 대학의 상황은 인구문제와 더불어 몇몇 대학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집중 현상을 완화할 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실용음악과 설치 대학의 개선을 통해 입학자원 부족에 대한 대안을 간구하고 음악 산업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한 주요 학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Reference

[1] Newsis, Online Article, Fertility rate lowest in OECD, [cited 2023 Feb 23]. Available Fr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22_0002202679 (Accessed April 30. 2023)

[2] H. K. Kim, "Study on the Direction of Advancement of Design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Vol. 6, No2, pp.326-335, 2021. DOI: <https://doi.org/10.46248/kidrs.2021.2.325>

[3] W. S. Ya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a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Music -In Search of the Paths to Music Industry-*,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Korea, pp.1-14, 2017.

[4] J. S. Lee, *Problems and Solutions in Education of Applied Music - Focus on College Curriculu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pp.31, 2010.

[5] J. E. Bae, *Trend Research of Applied Music Curricular in Korean Universities: Improv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Ph.D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Korea, pp.10, 2017.

[6] J. S. Lee,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pplied Music Education System in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pp.44, 2010.

[7] W. S. Ya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a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Music -In Search of the*

Paths to Music Industry-,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Korea, pp.37, 2017.

[8] Edujin, Online Article. Decrease in 2021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cited 2021 Nov 6] Available From: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77> (Accessed April. 16. 2023)

[9] J. H. Yang, S. Y. Kim, W. C. Lee, "A Study on the Increase in Demand for Practical Music Education and Education Imbalance", *Global Culture Content Academy*, Korea, Vol.2016, pp.152, No.2, 2016.

[10] S. S. Park, "Analysis On the Problems of College Preparatory Program in Applied Music Academy",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orea, pp.867-870, 2010.

[11] K. Y. Shin,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partment of Applied Music according to School System - The establishment history admission plan and curriculum of two-year, three-year, and four-year college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Korea, pp.42, 2011.

오 성 택(Sung-Taek Oh)

[정회원]



- 2016년 2월 :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Jazz Studies (Master of Music)
- 2020년 3월 ~ 현재 :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 2019년 3월 ~ 2022년 2월 :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음악교육, 공연예술